

2019년 1월 3일

KIWOOM DAILY

|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트럼프 발언에 힘입어 상승 전환 트럼프 “중국과 무역협상은 잘 진행 중이다”

미 증시 변화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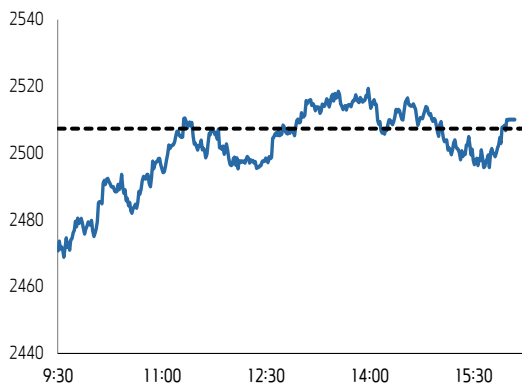
미 증시는 경기 둔화 우려감과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대 중국 추가관세 부과를 언급 했다는 보도로 하락 출발. 그러나 중국 정부가 무역 촉진책 발표한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 협상이 잘 진행 중” 이라고 주장하자 상승 전환에 성공하는 등 변동성 확대(다우 +0.08%, 나스닥 +0.46%, S&P500 +0.13%, 러셀 2000 +0.54%)

미 증시는 ①경기둔화 우려 ②라이트하이저 대표 관련 보도가 부정적인 영향을 준 반면 ③중국 정부의 무역 촉진책 ④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긍정적인 영향. 12 월 중국 제조업 PMI(49.4)와 차이신 제조업 PMI(49.7)가 예상과 달리 기준선(50.0)을 하회하자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이 부각되며 투자심리 위축. 여기에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 중국 추가 관세가 필요할 것이라고 경고 했다는 보도가 나온 점도 미 증시 하락 요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미국의 무역협상을 이끈다는 점을 감안 관련 보도는 미-중 무역협상 우려감을 높임.

그러나, 중국 정부가 자유무역지역에 위치한 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대 중국 판매 절차를 간소화 하는 ‘무역 및 통상 관련 촉진 정책’을 발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경기 둔화 우려감이 완화. 특히 1 월 1 일부터 중국 정부는 개인 소득세 감면, 주택임대 대출 이자 감면, 중소기업 대출 완화 등 경기 부양정책이 시행된다는 점도 긍정적인 영향.

한편, 오후에는 라이트하이저 대표의 발언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협상은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 라는 주장하자 미 증시는 상승 전환 성공.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은 “12 월 주식시장이 결함이 있었지만, 무역 협상이 잘 되면 상승 할 것” 이라고 주장 한 점도 긍정적인 영향. 이는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대 중국 추가 관세’를 언급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투자심리 개선 요인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지수	변동률(%)	지수	지수	변동률(%)
지수	Close	D-1	지수	Close	D-1
KOSPI	2,010.00	-1.52	홍콩항셱	25,130.35	-2.77
KOSDAQ	669.37	-0.93	영국	6,734.23	+0.09
DOW	23,346.24	+0.08	독일	10,580.19	+0.20
NASDAQ	6,665.94	+0.46	프랑스	4,689.39	-0.87
S&P 500	2,510.03	+0.13	스페인	8,550.00	+0.12
상하이종합	2,465.29	-1.15	그리스	605.34	-1.30
일본	20,014.77	휴장	이탈리아	18,330.99	+0.04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반도체 업종 강세

아마존(+2.47%)은 2018년 온라인 매출의 거의 50%를 차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 했다. 아마존은 2017년에 전체 온라인 매출의 44%, 전체 소매 판매의 4%를 차지 했으나, 2018년에는 이를 상회한 결과를 내놓아 실적 개선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 되었다. 페이스북(+3.50%)은 메신저 업그레이드 관련 소식이 전해진 데 힘입어 급등 했다. 더불어 광고 수익 개선 기대감이 높아 졌다는 분석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마이크론(+3.21%)은 무역분쟁이 이어지며 수요 전망이 하향 조정 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 졌으나 급등 했다. 특히 D램익스체인지는 1분기 D램 가격이 무역분쟁과 관련 긍정적인 현상이 발생하지 않으면 15% 하락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관련 소식은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는 분석이 제기된 이후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 웨스턴디지털(+3.49%), AMAT(+2.26%), NVIDIA(+2.04%) 등도 동반 상승 했다. 한편, 엑스모빌(+2.20%), 코노코필립스(+1.65%) 등 에너지 업종은 국제유가 상승 전환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다. JP모건(+1.73%), BOA(+1.30%) 등 금융주는 무역분쟁 완화 기대감이 높아지자 상승 했다. 반면, 테슬라(-6.81%)는 가격 인하 발표에 따른 매출 둔화 둔화 우려가 높아지자 급락 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2.86%	대형 가치주 ETF	+0.41%
에너지섹터 ETF	+2.42%	중형 가치주 ETF	-0.20%
소매업체 ETF	+1.41%	소형 가치주 ETF	+0.81%
금융섹터 ETF	+0.71%	배당주 ETF	-0.34%
기술섹터 ETF	+0.06%	변동성 ETF	-2.94%
소셜 미디어업체 ETF	+0.76%	대형 성장주 ETF	-0.03%
인터넷업체 ETF	+0.69%	중형 성장주 ETF	-0.44%
리츠업체 ETF	-2.26%	소형 성장주 ETF	+0.32%
주택건설업체 ETF	+0.89%	신흥국 고배당 ETF	-0.32%
바이오섹터 ETF	+1.11%	신흥국 저변동성 ETF	-0.21%
헬스케어 ETF	-1.50%	하이일드 ETF	-0.12%
곡물 ETF	-0.24%	물가연동채 ETF	+0.16%
반도체 ETF	+0.77%	Long/short ETF	-0.9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32.85	+2.07%	+8.65%	-11.01%
소재	318.05	+0.45%	+7.24%	-6.76%
산업재	544.60	+0.45%	+7.31%	-10.41%
경기소비재	788.75	+0.93%	+9.02%	-7.60%
필수소비재	519.68	-0.42%	+3.81%	-9.84%
헬스케어	987.65	-1.35%	+5.72%	-9.95%
금융	398.82	+0.74%	+7.65%	-10.79%
IT	1,089.04	+0.07%	+7.69%	-8.47%
커뮤니케이션	140.52	+1.25%	+7.38%	-6.23%
유틸리티	263.86	-1.77%	+0.83%	-6.00%
부동산	187.97	-2.28%	+1.39%	-10.01%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반도체 업종 주목

MSCI 한국 지수는 1.34% 하락 했으나, MSCI 신흥 지수는 0.26% 상승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수(4,408 계약)에 힘입어 1.75pt 상승한 260.60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19.00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 한국 증시는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감이 높아지자 하락 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 정책을 확대하고 있어 하락세가 지속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러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 협상이 잘 진행 되고 있다고 주장한 점은 긍정적이다. 이는 지난 12 월 주요국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이었던 점을 감안 관련 이슈 완화는 투자심리 개선에 우호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

더 나아가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0.88% 강세를 보이며 미 증시 상승을 주도 했다는 점도 한국 증시에 긍정적이다. 그 동안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데, 이는 한국의 관련 종목들에 대한 투자심리 개선 기대감을 높인다. 그 외에 국제유가가 사우디 공급 감소폭 확대로 인해 상승 한 점, 2 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 등 증시 주변 여건 개선 또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글로벌 주요국 제조업지표 둔화

12 월 중국 차이신 제조업 PMI 는 전월(50.2)은 물론 예상치(50.3)를 하회한 49.7 로 발표 되었다. 중국 통계국이 발표하는 제조업 PMI 도 기준선을 하회한 49.4 를 기록했다는 점을 감안 중국 제조업 둔화가 현실화 된 양상이다.

12 월 한국 수출은 전년 대비 1.2% 감소했으며, 수입 또한 전년 대비 0.9% 증가에 그쳤다. 미-중 무역분쟁이 이어지며 교역량이 축소된 점이 부담이었다.

12 월 미국 제조업 PMI 는 예비치(53.9)를 하회한 53.8 로 발표되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상승 전환 성공

국제유가는 글로벌 경기 둔화로 수요 위축 우려감이 높아지자 하락 출발 했다. 그러나 12월 사우디의 원유 수출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발표되는 등 OPEC 의 생산 감축이 시작되었다는 분석이 제기되자 급등 했다. 더불어 페르미안 지역의 파이프라인 병목 현상과 멕시코만 정전으로 미국의 공급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소식 또한 국제유가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달러화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부각되며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언급하며 ‘셋다운’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점도 달러 강세 요인 중 하나였다. 한편, 엔화는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자 달러 대비 1.5% 가까이 강세를 보였다. 유로화와 파운드화를 비롯해 신흥국 환율은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이 높아진 여파로 하락 했다. 다만, 미-중 무역분쟁 완화 기대감이 높아지며 미 증시가 상승 전환에 성공하자 금리 하락폭을 제한되는 등 보험권 등락을 보였다.

금은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자 상승 했다. 구리를 비롯해 비철금속은 안전자산 선호심리 여파로 하락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1.12%, 철근은 1.15% 상승 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46.54	+2.49	+9.43	Dollar Index	96.805	+0.75	-0.25
브렌트유	54.91	+2.06	+8.15	EUR/USD	1.1343	-1.06	-0.09
금	1,284.10	+0.22	+0.97	USD/JPY	109.09	-0.59	-2.05
은	15.649	+0.70	+5.59	GBP/USD	1.2611	-1.01	-0.17
알루미늄	1,797.00	-2.65	-5.87	USD/CHF	0.9904	+0.90	-0.53
전기동	5,842.00	-2.06	-2.49	AUD/USD	0.6997	-0.79	-0.98
아연	2,410.00	-2.31	-3.68	USD/CAD	1.3585	-0.34	+0.08
옥수수	375.75	+0.20	-0.53	USD/BRL	3.7868	-2.43	-3.02
밀	506.75	+0.70	-1.89	USD/CNH	6.8762	+0.06	-0.27
대두	907.00	+1.34	+1.11	USD/KRW	1119.00	+0.30	-0.30
커피	99.50	-2.31	-2.64	USD/KRW NDF1M	1119.05	+0.46	-0.30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2.650	-3.38	-15.75	스페인	1.399	-1.40	+0.20
한국	1.950	-0.60	-2.50	포르투갈	1.707	-0.70	+3.00
일본	0.003	0.00	-1.90	그리스	4.368	+2.20	+3.80
독일	0.165	-7.70	-8.50	이탈리아	2.690	-4.90	-13.70